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4. Vol. 9, No. 1, 147 - 162

##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가정폭력 피해와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에 대한 성의 조절효과

서 경 현<sup>†</sup>

삼육대학교 상담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가정 폭력 피해 경험과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그 관계에 대한 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데이트 경험이 있는 897명(남: 361, 여: 536)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고, 그들의 연령 분포는 15세에서 40세(M=20.50, SD=3.19) 사이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심리검사는 Straus의 갈등척략척도, Foo와 Margolin의 데이트 폭력 정당화 척도이다. 분석 결과,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에게서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을 보고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정폭력 경험과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에는 성차가 발견되었다. 회귀 분석에서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행하는 폭력의 목적과 부모로부터 가혹 체벌을 당한 경험은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에 대한 유의한 예언변인이었고, 가혹 체벌을 당한 경험과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에는 성의 조절효과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는 데이트 폭력의 변량의 각각 4%와 8% 정도만을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데이트 폭력에 중요한 변인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어: 성,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조절효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폭력은 만 에 행해지는 폭력이나 아동학대로 나타나는 가정  
성적일 수 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부부간 폭력은 한국사회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서경현, (139-742)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26-21 삼육대학교 상담학과, 전  
화: (02) 3399-3314, E-mail: khsuh@syu.ac.kr

지고 있고, 1998년 7월부터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폭력 중에서 데이트 폭력은 서양에서와는 달리 한국사회에서는 그 심각성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간혹 대중매체를 통해서 다루어지기는 했지만(중앙일보, 2001년 9월 14일자), 데이트 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알고 있는 한국인들은 아직 많지 않다.

이성을 사귀면서 사람들은 서로의 아픔을 감싸고 사랑을 나누기도 하지만 상대방에게 분노, 질투, 혼란을 정서적으로 표출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폭력이 행해지기도 하는데(Henton, Cate, Koval, Lloyd, & Christopher, 1983), 이런 폭력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다(서경현, 2001; Levy, 1990).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데이트 폭력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사회에 편만해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데이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세 명중에 적어도 한 명이 상이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다고 하는데(Levy, 1990), 한국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선행연구들에서도 그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났다(서경현, 2002; 서경현, 김봉진, 정구철, 김신섭, 2001; 서경현, 이경순, 2002; 서경현, 이영자, 2001).

서양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많이 탐구되어 온 반면에 한국에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많지 않다. 비교적 많은 연구들이 수행된 서양의 경우에도 어떤 변인들이 데이트 폭력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Charkow & Nelson, 2000). 한편, 서양과는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온 한국인들이 경험하는 데이트 폭력은 그 양상이 다를 수 있고 그것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실증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다.

부모간의 가정폭력을 목격하였거나 아동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가정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다(Campbell & Humphrey, 1993; Riggs & O’Leary, 1989). 가정폭력 피해 경험은 청소년기의 비행이나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조미숙, 2003; Carlson, 1990; Horowitz, 1995), 학교에서의 폭력적 행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김정옥, 박경규, 2002).

가정폭력 경험은 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논의되어 온 변인이다. 어린 시절에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와 같이 자신도 가정폭력을 행하거나 그것에 피해자 될 가능성이 높다는 믿음을 일반 사람들도 가지고 있다. 부모간에 행해지는 폭력의 목격과 부모로부터의 받은 폭력 피해는 자녀의 가정폭력과 데이트 폭력을 유발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런 가정은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하는데, Bandura(1977)는 아동은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여 학습하고 성장 후 여러 인간관계에서 그런 행동들을 행한다고 설명하였다. 데이트 폭력을 설명하는 사회학습이론으로는 Riggs와 O’Leary(1989)의 모델이 있다. Riggs와 O’Leary(1989)는 데이트 폭력을 예언하는 다양한 변인들을 전후관계성 변인(the contextual variables)과 상황적 변인(situational variables)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부모간에 행해지는 폭력의 목격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폭력은 전후관계성 변인에 포함되는 것으

로 “상대방에게 과격하게 행동할까”를 예언해 줄 수 있는 근원적인 변인으로 보고 있다. 폭력을 갈등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태도도 이 전후관계성 변인에 포함된다.

가정폭력 경험과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에서 매번 일관된 결과가 도출된 것은 아니다(서경현 등, 2001; 서경현, 이영자, 2001; Comins, 1984; Foo & Margolin, 1995; Riggs & O’Leary, 1996). 어떤 연구들에서는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하는 것이 데이트 폭력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인다는 결과를 얻었는가 하면(Riggs, O’Leary, & Breslin 1990; Smith & Williams, 1992; Foo & Margolin, 1995; Foshee, Bauman, & Linder, 1999),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둘 사이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omins, 1984; Stets & Pirog-Good, 1987; Follette & Alexander, 1992; Riggs & O’Leary, 1996).

부모간에 행하는 폭력의 목격 뿐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폭력이나 아동학대의 경험과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도 일관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폭력의 경험과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도 어떤 연구들에서는 성차 없이 강하게 나타났지만(Sigelman et al., 1984; Smith & Williams, 1992), 어떤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과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Foo & Margolin, 1995; Riggs et al., 1996; O’Keefe, 1997, 서경현 등, 2001).

가정폭력 경험과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가 이렇게 일관적으로 보고되지 않는 이유를 Kaufman과 Zigler(1987)는 가정폭력과 데이트 폭력의 관계가 학자들의 가정하는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행한 사람들의 30% 정도만이 부모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나 부모로부터의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과거 가정폭력 경험과 데이트 폭력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들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어떤 조절변인이 존재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부모간에 행해지는 폭력의 목격과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에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이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훨씬 높은 관련성을 보였으나(Foo & Margolin, 1995; O’Keefe, 1997), 한 연구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Sigelman, Berry, & Wiles, 1984). 부모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과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에도 성차가 있어 그런 관계가 남성에게서만 나타난 연구가 있었는가 하면(Marshall & Rose, 1988), 여성에게서만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었다(Tontodonato & Crew, 1992). 따라서 성은 각 가정폭력 하위변인들과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에 조절변인일 가능성이 크다. 성은 가정폭력 외에도 다른 변인들과 데이트 폭력과의 관계에도 조절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연구들도 있었다(Arias & Johnson, 1989; Henton et al., 1983; Foshee, Linder, MacDougall, Bengdiwala, 2001; O’Keefe, 1998; Stets & Pirog-Good, 1989).

남녀 사이에 행하는 폭력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데이트 폭력을 행하거나 데이트 폭력에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도 여러 연구에서 증명되었기 때문에(Stets & Pirog-Good, 1989; O’Keefe, 1998), 가정

폭력 경험이 데이트 중에 행하는 폭력에 대한 태도와도 관련되어 있을 수 있어 그 점도 검증하였다.

사회학습이론(Riggs & O'Leary, 1989)에서는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는 물론 피해와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데이트 폭력의 예방으로 위해서는 데이트 폭력 가해와 관련된 변인뿐만 아니라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탐구도 필요하기 때문에(Levy, 1990) 최근에 들어서는 데이트 폭력 피해도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어 연구되고 있다(서경현, 이경순, 2002; O'Keefe,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데이트 폭력 가해 뿐 아니라 데이트 폭력 피해도 함께 다루려고 한다.

한편, 부모간의 폭력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폭력과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행하는 폭력으로 나누어 분석한 연구가 있고(O'Keefe, 1997),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서경현, 김봉진 등, 2001)에서도 부모간 폭력 중에서도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행하는 폭력의 목격만이 데이트 폭력의 예언변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간의 폭력을 둘로 나누어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중 상대방에게 행하는 신체적인 폭력을 의미한다. 서양에서는 어떤 것을 상대방에게 던진 것이나 상대방을 떠밀거나 찌른 것도 신체적 공격 혹은 폭력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제는 한국에서도 이런 행동이 비폭력적인 갈등 해결방식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처럼 모든 신체적 공격 행위를 폭력으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간에 행해졌던 폭력의 목

격도 언어 폭력은 배제한 신체 폭력만을 의미한다. 게다가 그것은 부모간에 행해졌던 폭력의 사실 여부가 아니고 그런 폭력을 연구 대상자들이 목격하였는지에 대한 것이다. 부모로부터의 폭력 혹은 아동학대에 대한 해석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그것은 대상자 자신이 잘못했을 때 혹은 아무 이유 없이 부모가 자녀에게 신체적 체벌이나 구타 행위를 한 것을 의미한다. 서양의 경우 아무리 약한 수준의 신체적인 체벌이라도 그것을 폭력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경우와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형태의 신체적 체벌도 폭력적 갈등 책략방식에 포함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현대화된 한국의 실정에도 맞을 뿐 아니라 추후 연구 결과를 비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과거에 경험한 가정 폭력과 데이트 폭력에 대한 태도,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와의 관계를 탐색하고, 가정 폭력과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에 대한 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그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였다. 첫째, 부모간에 행해졌던 폭력과 부모로부터의 폭력 피해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태도,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와 상관이 있는가? 둘째, 부모간에 행해졌던 폭력과 부모로부터의 폭력 피해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에 대한 유의한 예언변인인가? 셋째, 가정폭력 피해와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에 성의 조절효과가 있는가?

이와 같이 제기된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부모간

에 행해졌던 폭력의 목격 경험과 부모로부터의 가혹체벌 경험, 그리고 이성을 사귀는 가운데 겪는 폭력의 실상을 파악하고 가정폭력과 데이트 폭력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비록 본 연구가 실험 연구는 아닐지라도 과거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트 경험보다 선행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준다는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방 법

### 연구 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세 고등학교와 두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와 검사지는 25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주어졌으나 이성과 사귀는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자료나 불완전한 자료는 제거하였고, 최종적으로 897명(남학생 361명, 여학생 536명)으로부터 얻은 자료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15세에서 40세( $M=20.50$ ,  $SD=3.19$ )까지 분포되어 있다. 참여자들 중에 45.6% 설문 당시 사귀는 이성친구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사귀어 온 이성친구의 수의 평균은 3.53( $SD=4.94$ )명이었다.

약 30%가량의 대상자로부터는 면접방식을 통해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서양에서는 면접을 통하여 데이트 폭력을 조사한 연구가 많지만 면접을 통하여 한국사람들부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에는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미국 대학생들

과 한국 대학생들 모두로부터 면접을 통하여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정보를 얻었던 연구자의 경험에 의하면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이나 태도에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서양 사람보다 한국 사람은 이전에 이성관계에서 겪은 부정적인 경험이 노출하기를 더 꺼려하는 듯 했다. 예전에 이성관계에서 겪은 부정적인 경험이 노출되면 이후의 이성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다. 이런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연구자들은 면대면 면접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기기입식 방식과 면접 방식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하여 보았다. 면접으로 얻은 자료에서 데이트 폭력 경험에 대한 보고가 다소 많았지만 그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얻은 자료들 모두를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설문에 응답하기 전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참여에 동의를 구하였으며 개인정보의 누출이 없을 것이며 연구 참여를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고 알렸다. 대상자들이 설문 과정에서 소비한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본 연구를 위한 통계분석은 SPSS 10.0 for Windows에 의해 실행되었고, 주요 통계분석은 교차분석, t검증, Pearson 적률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이었다. 부모간에 행해졌던 폭력의 목격 경험 여부는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폭력 목격을 묻는 10문항과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폭력 목격을 묻는 10문항 중 한 문항에서라도 한번 이상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부모간에 행해졌던 폭력의 목격 경험이 있다고 분류하였다. 부모로부터의 가혹체벌 경험 여부도 아버지로부터의 가혹체벌 경험을 묻는 10문항과 어머니로부터의 가혹

체벌 경험을 묻는 10문항 중 한 문항에서라도 한 번 이상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부모로부터의 가혹체벌 경험이 있다고 분류하였다. 부모로부터 받은 가혹체벌의 경험의 점수는 아버지로 부터 받은 가혹체벌 점수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가혹체벌 점수를 더한 것이다.

### 조사 도구

**갈등책략 척도** 서경현(2001)에 의해 번안된 Straus의 갈등책략척도(Conflict Tactics Scales, 1979)가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과 데이트 폭력 피해, 그리고 부모간의 폭력 목격과 부모로부터의 가혹체벌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다. 본 척도는 자신이 갈등상황에서 이성친구에게 사용했던 책략(20문항), 이성친구가 갈등상황에서 자신에게 사용했던 책략(20문항), 아버지가 갈등상황에서 어머니에게 사용했던 책략(20문항), 어머니가 갈등상황에서 아버지에게 사용했던 책략(20문항), 아버지가 갈등상황에서 자신에게 사용했던 책략(20문항), 어머니가 갈등상황에서 자신에게 사용했던 책략(20문항)이 측정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폭력을 사용한 책략을 포함한 각 10문항씩만을 설문지에 포함시켰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없다', 2--'한 번', 3--'두 번에서 세 번', 4--'네 번에서 다섯 번', 5--'여섯 번 이상'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11번에서 20번까지가 신체적 공격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갈등상황에서 신체적 폭력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는데, '어떤 것을 던졌다', '떠밀거나 찼다', '손바닥으로 때렸다', '발로 차거나 이로 물거나 주먹으로 쳤다', '어떤

것으로 때렸거나 때리려고 했다', '심하게 구타했다', '칼 혹은 다른 무기로 위협했다', '칼 혹은 다른 무기를 사용했다', '성적 행동을 하기 위해 물리적 힘을 사용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사용하여 성행위를 하려고 시도했다'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척도의 신체적 폭력을 측정하는 10문항의 Cronbach alpha값은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이 .82, 데이트 폭력 피해가 .84,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폭력 목격이 .87,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폭력 목격이 .85, 아버지로부터의 가혹체벌이 .92, 어머니로부터의 가혹체벌이 .86 이었다.

**데이트 폭력 정당화 척도** 데이트 폭력을 수용하는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Foo와 Margolin의 폭력 정당화 척도(Justification of Violence Scale, 1995)를 번안해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참여자들이 여덟 가지 상황 하에서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대 그러면 안 된다', 2--'심하지 않으면 괜찮다', 3--'그럴 수도 있다', 4--'맞을 짓을 했으니 당연하다'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여덟 가지 상황들은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위협할 때, 술 취해 정신 나간 짓을 할 때, 논쟁을 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때릴 때, 상대방이 자신을 속인 것이 드러났을 때, 자신을 욕이 섞인 호칭으로 불렀을 때,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노닥거릴 때,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바보로 만들 때, 다른 친구들을 만나러 가지 못하게 할 때로 묘사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8에서 32까지이다. 폭력정당화 척도의 내적일관도 Cronbach alpha값은 .87을

표 1. 가정폭력 피해 경험 여부와 데이트 폭력 경험 여부의 성차

경험여부	남학생(n=361)		여학생(n=536)		X <sup>2</sup>
	없습(%)	있습(%)	없습(%)	있습(%)	
부모간 폭력 목격	226(62.6)	135(37.4)	328(61.2)	208(38.8)	.18
부모로부터의 가혹 체벌	179(49.6)	182(50.4)	251(46.8)	285(53.2)	.66
데이트 폭력 가해	249(69.0)	112(31.0)	321(59.9)	215(40.1)	7.69**
데이트 폭력 피해	282(78.1)	79(21.9)	419(78.2)	196(21.8)	.00

\*\* p<.01.

나타냈다.

**일반질문지** 인구통계학적 자료, 연애 기록, 종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질문지가 참여자들에게 주어졌다. 여러 가지 연애기록 중에 현재 애인의 유무, 현재까지 사귀어 온 사람은 모든 참여자로부터 보고되었다.

## 결 과

### 가정폭력 경험과 데이트 폭력의 성차

대상자들이 보고한 가정폭력 피해 경험과 그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에 성차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부모간에 행해지는 폭력의 목격과 부모로부터 가혹한 체벌을 받은 경험, 즉 대상자들의 가정폭력 경험에는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남학생의 37.4%와 여학생의 38.8%가 부모간에 행해지는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남학생의 50.4%와 여학생의 53.2%가 부모로부터 가혹한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남학생의 31.0%와 여학생의 40.1%가 데이트 도중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1, N=897)=7.69, p<.01$ . 그러나 남학생의 21.9%와 여학생의 21.8%가 데이트 도중 상대방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다. t검증에서는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에서 유의한 성차를 발견되지 않았다(표 2 참고).

### 가정폭력 경험과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

과거의 가정폭력 목격 및 피해 경험이 데이트 폭력과 관계가 있는지 남녀로 나누어 상관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2 데이트 폭력 경험의 남녀 평균, 표준편차 및 t값

변인	남학생(n=361)		여학생(n=536)		t
	M(SD)	M(SD)	M(SD)	M(SD)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	11.80(5.00)	12.30(4.87)			-1.51
데이트 폭력 피해 행동	11.22(4.16)	10.92(2.76)			1.27

표 3. 가정폭력 경험과 데이트 폭력에 관한 태도 및 데이트 폭력 경험의 상관행렬표

변인	1	2	3	4	5	6
1. 부→모 폭력 목격		.51***	.37***	.08	.19***	.28***
2. 모→부 폭력 목격	.37***		.44***	.09*	.18***	.34***
3. 부모로부터의 가혹 체벌	.44***	.21***		.11*	.18***	.22***
4. 데이트 폭력에 관한 태도	.18**	.06	.16**		.19***	.07
5. 데이트 폭력 가해	.02	.13*	.12*	.38***		.49***
6. 데이트 폭력 피해	.09	.17**	.19***	.27***	.53***	

\*  $p < .05$ , \*\*  $p < .01$ , \*\*\*  $p < .001$

주. 대각선 왼쪽 아래는 남학생( $n=361$ )의 상관계수이고  
대각선 오른쪽 위는 여학생( $n=536$ )의 상관계수이다.

부모간에 행해지는 폭력에 대한 목격은 남성의 데이트 폭력보다는 여성의 데이트 폭력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차이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폭력의 목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폭력의 목격은 남학생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태도와는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지만 ( $r(361)=.18, p < .01$ ),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와는 상관성이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폭력의 목격은 여학생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태도와는 관계가 없었으나, 데이트 폭력 가해( $r(536)=.19, p < .001$ ) 및 피해( $r(536)=.28, p < .001$ )와는 모두 정적상관이 있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행하는 폭력의 목격은 남학생의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와 정적상관, 그리고 여학생의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와도 정적상관이 있었다. 게다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행하는 폭력의 목격은 여학생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태도와도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r(536)=.09, p < .05$ ).

부모로부터 가혹 체벌을 받은 경험은 남녀 모두에게서 데이트 폭력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로부터 가혹 체벌은 남학생의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와 정적상관, 그리고 여

학생의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와도 정적상관이 있었다. 부모로부터 가혹 체벌을 받은 경험은 남학생( $r(361)=.16, p < .001$ )과 여학생( $r(536)=.11, p < .05$ )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태도와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트 폭력과 관계가 있다면,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를 유의하게 예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의하게 예언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설명력이 있는지 검증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성과 가정폭력 경험의 상호작용을 검증하였다.

가정폭력 세 하위변인과 성×가정폭력을 독립변인으로 한 각 회귀분석들의 잔차항 독립성 검증에서는 Durbin-Watson 값이 1.77~1.92로 2에 수렴하여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었다. 성×가정폭력 세 하위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을 점검한 결과, 분산팽창계수(VIF)가 최대 6.75로 10이하였고 각 최대상태지수(C.I.)도 15에 훨씬 미치지 않아 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표 4. 데이트 폭력 가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B	$\beta$	t
성	.51	.05	1.51
$R^2 = .003(n.s.)$ $\Delta R^2 = .001(n.s.)$			
부→모 폭력 목격	.03	.04	.900
모→부 폭력 목격	.21	.11	3.00**
부모로부터의 가혹 체벌	.08	.10	2.72**
$R^2 = .039(p<.001)$ $\Delta R^2 = .035(p<.001)$			
성×부→모 폭력 목격	-.10	-.13	-1.50
성×모→부 폭력 목격	-.02	-.02	-.29
성×부모로부터의 가혹 체벌	.08	.13	1.81+
$R^2 = .005(n.s.)$ $\Delta R^2 = .002(n.s.)$			

+ $p<.10$ , \*\*  $p<.01$ , \*\*\*  $p<.001$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행하는 폭력의 목격과 부모로부터 가혹 체벌을 받은 경험은 데이트 폭력 가해의 유의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지만 가정폭력 경험 세 가지 하위 변인으로는 데이트 폭력 가해의 변량을 약 4%밖에 설명하지 못했다. 한편, 데이트 폭력 가해에는 성과 부모로부터 가혹 체벌을 받은 경험의 상호작용이 있었다,  $\beta=.08$ ,  $p<.10$ . 데이트 폭력에 대한 성의 주효과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은 부모로부터 가혹 체벌과 데이트 폭력 가해와의 관계에 순수조절변인(pure moderator)인 것이다. 한편, 남녀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에서는 부모로부터 가혹 체벌을 받은 경험( $\beta=.10$ ,  $p<.05$ )은 여학생의 데이트 폭력 가해의 유의한 예언변인이었다.

데이트 폭력 피해를 종속변인으로 한 분석(표 5 참고)에서도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행하는 폭력의 목격과 부모로부터 가혹 체벌을 받은 경험은

데이트 폭력의 유의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경험은 데이트 폭력 가해보다는 데이트 폭력 피해의 변량을 조금 더 설명하고 있었지만 데이트 폭력 피해의 변량도 약 7-8%밖에 설명하지 못했다. 데이트 폭력 피해에도 성과 부모로부터 가혹 체벌을 받은 경험의 유의한 상호작용이 발견되었다,  $\beta=.09$ ,  $p<.01$ . 성은 부모로부터의 가혹 체벌과 데이트 폭력 피해와의 관계에도 순수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 논 의

본 연구를 통하여 데이트 경험이 있는 한국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 세 명중에 한 명 정도가 데이트 도중에 상대방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데이트 폭력은 가정폭력 보다는 그 기간이 다소 짧을 수 있지만 가정폭력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데이

표 5. 데이트 폭력 피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B	$\beta$	t
성	.29	.04	1.27
$R^2 = .002(n.s.)$ $\Delta R^2 = .001(n.s.)$			
부→모 폭력 목격	.03	.02	1.33
모→부 폭력 목격	.23	.18	4.89***
부모로부터의 가혹 체벌	.06	.11	3.18**
$R^2 = .077(p<.001)$ $\Delta R^2 = .074(p<.001)$			
성×부→모 폭력 목격	-.04	-.08	-.93
성×모→부 폭력 목격	-.02	-.04	-.45
성×부모로부터의 가혹 체벌	.09	.21	2.97**
$R^2 = .015(p<.01)$ $\Delta R^2 = .012(p<.01)$			

\*\*  $p<.01$ , \*\*\*  $p<.001$

트 중에 폭력이 발생하면 결혼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폭력보다도 데이트 폭력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 생각된다.

데이트 폭력의 가해 경험을 보고한 비율이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일련의 연구들(서경현, 김봉진 등 2001; 서경현, 이경순, 2002; 서경현, 이영자, 2001)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피험자 혼자 익명으로 보고하는 방식과 면접으로 설문에 응하는 방식간에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련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지만(예: Henton et al., 1983, Stets & Henderson, 1991), Foshee(1996)의 연구, 그리고 Plass와 Gessner(1983) 연구에서는 데이트 도중에 신체적 폭력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비율이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Archer(2000)의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신체적인 공격을 약간 더 빈번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체적으로 상처를 입힐 정도의 폭력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62%가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Molidor와 Tolman(1998)의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의 비율에는 성차가 없었지만, 폭력을 행한 이유를 자기방어 때문이었다고 보고한 남학생들이 6%인데 반해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37%가 자기방어가 폭력을 행한 이유라고 보고했다. 그리고 남학생들은 데이트 폭력을 그리 위협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 반면에, 여학생들은 그것을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주는 폭력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들의 신체적·성적 폭력이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 영국의 한 연구에서도 증명되었다(Hird, 2000).

본 연구에서도 데이트 폭력 가해 비율에는 성차가 있었지만 데이트 폭력 가해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다. 물론, 양적인 연구를 통해서 데이트 폭력의 질적인 면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대상자들이 갈등척략척도에 응답한 결과를 보면,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은 대개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던진 경험, 떠밀거나 쪼른 경험 혹은 손바닥으로 때린 경험 정도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데이트 폭력 피해자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대부분 심각한 피해자는 대개 여성인 것으로 나타난다(Levy, 1990).

본 연구에서도 가정폭력 경험은 데이트 폭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관계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성이 조절변인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폭력의 목적과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와의 관계는 여학생들에게서만 발견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회귀분석 모델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폭력의 목적과 데이트 폭력과의 관계에 성이 유의한 조절변인이 아니었다. 실험연구는 아니지만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트 폭력 경험보다 선행되었다는 가정 하에 인과관계를 추정할 때 여학생의 경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했다면 데이트 폭력을 행하거나 그것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폭력을 목격한 여학생은 데이트 도중 갈등 상황이 되면 자기방어 차원에서 폭력을 행하는 것(Molidor & Tolman, 1998)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다.

남녀 모두에게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행하는 폭력의 목적은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와 관계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행하는 폭력을 목격하면 데이트 폭력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데이트 폭력 피해를 당할 가

능성이 높아지는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행하는 폭력의 목적은 남녀 모두에게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태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다른 매개변인이 있을 것이고 추후 연구에서 밝혀지기를 바란다.

단순상관분석에서는 부모로부터 가혹 체벌을 당한 경험이 남녀 모두에게서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와 관계가 있었다. 회귀분석에서도 부모로부터 가혹 체벌을 당한 경험은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 모두의 유의한 예언변인이었다. 체벌 경험 혹은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학생이 신체적 폭력을 행한다면 신체적 폭력을 갈등의 해결책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사회학습이론(Bandura, 1977)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폭력을 행하는 부모의 모습 혹은 폭력을 당하는 부모의 모습을 모방하여 실제로 그 모습을 재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정폭력 경험과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에 성의 조절효과가 발견되었다. 이런 결과는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성이 조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경험과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에 성의 조절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지만 가정폭력 경험으로 데이트 폭력 가해의 변량은 5% 이하, 그리고 데이트 폭력 피해의 변량은 8% 이하만을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이런 결과는 Kaufman과 Zigler(1987)가 가정폭력과 데이트 폭력의 관계가 학자들이 가정하는 만큼 강하지 않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한국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

인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변인들에 파악하고 그것에 변화를 줄 때 한국인의 데이트 폭력과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중재할 수 있을 것이다.

Riggs와 O'Leary(1989)의 사회학습이론 모델에서는 가정폭력 외에도 “상대방에게 과격하게 행동할까”를 예측해 줄 수 있는 근원적인 변인, 즉 전후관계성 변인으로 친밀한 관계에서의 호전성, 폭력은 갈등 상황에서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과거의 폭력행사 경험, 성격, 자극에 대한 민감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 공격성이 나타날까”를 예언해 주는 상황적 변인으로 스트레스, 알코올, 상대방의 공격적 행동, 갈등의 존재, 관계에 대한 만족, 폭력의 이득에 대한 기대 등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분노(서경현, 이경순, 2002; Dye & Eckhardt, 2000)와 정신병적 경향성(서경현, 이경순, 2002; Gavazzi, Julian, & McKenry, 1996), 그리고 중독성(서경현, 이경순, 2002; Charkow & Nelson, 2000)도 데이트 폭력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들에 의해 검증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태도가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와 정적상관이 있었다. 이런 결과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가 한국 남녀 대학생 모두에게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강력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난 서경현 등(2001)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 서양의 경우, 데이트 폭력을 행하는 이들이 데이트 폭력에 대해 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이 많았지만(Henton et al., 1983; Arias & Johnson, 1989), 이런 관계가 남성에게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도 있었기 때문에(Foshee et al., 2001; Stets & Pirog-Good, 1989; O'Keefe,

1998), 한국에서도 많은 실증 연구들을 통해 재검증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가정폭력 경험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태도와 기대한 만큼의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태도와 같은 인지적인 변인이 가정폭력 경험과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에 매개변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에 있는 고등학교들과 대학교들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한국 고등학생과 대학생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다. 둘째, 본 연구를 위해 가정폭력과 데이트 폭력을 측정하는 방식 중에 갈등척략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 측정방식이 완전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해석의 제한이 있지만 본 연구는 한국인의 데이트 폭력과 더 나아가서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리라 생각된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고 본 연구의 결과도 추후연구를 통해 재확증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트 폭력보다 선행한다고 가정하고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관계를 명확히 검증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데이트 폭력을 예언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 모델을 구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데이트 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생각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사회는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서양에는 특별히 준비된 학교가 있어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이 공부하면서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치유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데이트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런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연구도 있었다(Weisz & Black, 2001). 그 곳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빠른 중재가 피해를 줄일 수 믿고 고등학생이나 그보다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상담실과 대학의 학생생활상담센터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정옥, 박경규(2002).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 폭력과의 관계 연구: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 93-115.
- 서경현(2001). 이성을 사귀면서도 폭력을 행사하는가? *삼육대학교 학생생활 연구*, 5, 91-104.
- 서경현(2002). 청소년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사회합성적 변인들과 분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 1-15.
- 서경현, 김봉진, 정구철, 김신섭(2001). 대학생들의 데이트 폭력과 예측변인. *대한여성건강학회지*, 2, 75-98.
- 서경현, 이경순(2002). 데이트 폭력 경험자들의 분노, 정신병적 경향성 및 중독성.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 353-369.
- 서경현, 이영자(2001). 고등학생들의 데이트 폭력의 예측변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 91-106.
- 조미숙(2003). 아내구타에 노출된 아들과 딸의 문제행동 비교연구. *아동관리연구*, 7, 157-179.
- 중앙일보(2001, 9, 14). 데이트 폭력이 늘고 있다. 50면.
- Archer, J. (2000).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partner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6, 651-680.
- Arias, I., & Johnson, P. (1989). Evaluations of physical aggression among intimate dyad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4, 298-307.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New York: General Learning Press.
- Campbell, J., & Humphrey, J. (1993). *Children of battered women: Nursing care of survivors of family violence*. New York: Mosby-Year Book.
- Carlson, B. E. (1990). Adolescent observers of marital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5, 285-299.
- Charkow, W. B., & Nelson, E. S. (2000). Relationship Dependency, Dating Violence, and Scripts of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3, 17-28.
- Comins, C. A. (1984). Courtship violence: A recent study and its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Paper delivered at the Second National Conference for Family Violence Researchers*, Durham, NH. 7-10.
- Dye, M. L., & Eckhardt, C. I. (2000). Anger, irrational beliefs, and dysfunctional attitudes in violent dating relationships. *Violence Victims*, 15, 337-350.
- Follette, V., & Alexander, P. C. (1992). Dating violence: Current and historic correlates. *Behavioral Assessment*, 14, 39-52.
- Foo, L., & Margolin, G. (1995). A multivariate investigation of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0, 291-305.
- Foshee, V. (1996).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dating abuse prevalence, types, and injuries. *Health Education Research*, 11, 275-286.
- Foshee, V. A., Bauman, K. E., & Linder, G. F. (1999). Family violence and the perpetration of adolescent dating violence: Examining social

- learning and social control process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331-343.
- Foshee V. A., Linder, G. F., & MacDougall J. E., & Bangdiwala, S. (2001). gender differences in the longitudinal predictors of adolescent dating violence. *Preventive Medicine*, 32(2), 128-141.
- Gavazzi, S. M., Julian, T. W., & McKenry, P. C. (1996). Utilization of the Brief Symptom inventory to discriminate between violent and nonviolent male relationship partners. *Psychological Reports*, 79, 1047-1056.
- Henton, J., Cate, R., Koval, J., Llyod, S., & Christopher, F. (1983). Romance an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s*, 4, 467-482.
- Hird, M. J. (2000). An empirical study of adolescent dating aggression in the U. K. *Journal of Adolescence*, 23, 69-78.
- Horowitz, W. S. (1995). PTSD symptoms in urban adolescent girls: Compounded community trauma. *Journal of America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4, 1353-1361.
- Kaufman, J., & Zigler, E. (1987). Do abused children become abusive par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186-192.
- Levy, B. (1990). Abusive teen dating relationship: An emerging issue for the 1990s. *Response*, 13, 3-12.
- Marshall, L. L., & Rose, P. (1988). Family of origin and courtship violenc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6, 414-18.
- Molidor, C. E., & Tolman, R. M. (1998). Gender and contextual factors in adolescent dating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an*, 4, 119-134.
- O'Keefe, M. (1997).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 546-568.
- O'Keefe, M. (1998). Factors mediating the link between witnessing interparental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3, 39-57.
- Plass, M. S., & Gessner, J. C. (1983). Violence in courtship relations: A southern sample. *Free Inquiry in Creative Sociology*, 11, 198-202.
- Riggs, D. S., & O'Leary, K. D. (1989). Intentional falsification in reports of interpartner agg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4, 220-232.
- Riggs, D. S., & O'Leary, K. D. (1996).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dating partners: An examination of a causal model of courtship agg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1, 519-540.
- Riggs, D. S., O'Leary, K. D., & Breslin, F. C. (1990). Multiple predictors of physical aggression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5, 61-73.
- Sigelman, C. K., Berry, C. J., & Wiles, A. (1984). Violence in college students'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5, 530-548.
- Smith, J. P., & Williams, J. G. (1992). From abusive household to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7, 153-165.
- Stets, J. E., & Henderson, D. A. (1991). Contextual factors surrounding conflict resolution while dating: Results from a national study. *Family Relations*, 40, 29-36.
- Stets, J. E., & Pirog-Good, M. A. (1987).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0, 530-548.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8.

Tontodonato, P., & Crew, B. K. (1992). Dating violence, Social learning theory, and gender: A multivariate analysis. *Violence & Victims*, 7, 3-14.

Weisz, A. N., & Black, B. M. (2001). Evaluating a sexual assault and dating violence prevention program for urban youths. *Social Work Research*, 25(2), 89-101.

원고 접수: 2004년 2월 5일

수정원고 접수: 2004년 2월 28일

게재 결정: 2004년 3월 12일

# The Moderate Effect of Gend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Kyung-Hyun Suh

Department of Counseling, Sahmyook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among Korean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and examine the moderate effect of gender on those relationship. The participants were 897 Korean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361 males and 536 females) who had the experience of heterosexual dating relationship, whose ages ranged from 15 to 40 ( $M=20.50$ ,  $SD=3.19$ ). The psychological tests used in this research included the following: Straus' Conflict Tactics Scale and Foo and Margolin's Justification of Violence Scale. Results revealed that female students reported more frequently experience of inflicting dating violence than male students did. Gender differences were found in relationship between the domestic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Regression analyses indicated that witnessing the mother's physical violence to father and harsh punishment from parent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both inflicting and receiving dating violence, and yet the domestic violence accounted for the only 4-8% of the variances. Although it was found that relationship between the harsh punishment from parents and dating violence were moderated by gender, the domestic violence was not determinant variable of dating violence among Korean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Keywords:* gender, domestic violence, dating violence, moderate effect